한명숙 신임 환경부 장관

정책개발 단계부터 환경 우선한다!

한명숙 신임 환경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라도 환경이 우선되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부가 참여해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환경단체를 계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장관

여성부에서 일하다 바로 환경부로 옮기게 된 한명숙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그러나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NGO(비정부기구)에 있을 때 환경운동을 열심히 했고 제16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도 지내 환경부가 생소하지 않고 친근감이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이다.

현안이 많은데 경제부처와의 협상이 힘겹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고려해 발전하는 녹색국가를 만들겠다며 NGO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험, 여성부 장관 재직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라도 환경이 우선시 되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부가 참여해 환경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앞으로 개발사업이 있을 시 계획단계부터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협력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혀 환경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예상된다.

한명숙 장관은 국가 정책이 아직도 외적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정책 결정에서 환경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명숙 장관은 2월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환경적 건전성과 경제적 효율, 사회 정의가 조화되는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시행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및 4대강 특별법 후속조치 조기 정착 ▷전력환경 영향평가 및 자연경관 심의제도 도입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세대 핵심 환경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바로잡고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944년 3월24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

▷학력: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이화여대 불문학과(학사), 한국신학대학 선교신학대학원(석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석사), 미국 뉴욕유니온 신학대학교 객원연구원

▷ 주요경력: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 간사,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족법개정특별위원장,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환경처 환경보전 실무대책위원, 통일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제16대 국회의원(환경노동위 여성특위 위원), 국회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 국회 한·일 의원 연맹 간사, 국회 한국아동환경인구연맹(CPE)이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 여성부 장관

<Chemical Journal 2003/ 03/ 03>